주민제안형 도시설계 운영 및 평가: 뉴타운시민대학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ident-Oriented Urban Design of Citizen Academy: Case of Gyong-gi Newtown Academy

조영태¹ · 이재준² · 최석환³ · 김도영⁴

Young-Tae Cho¹, Jae-joon Lee², Suk-hwan Choi³ and Do-young Kim⁴

(Received January 16, 2013 / Revised April 30, 2013 / Accepted April 30, 2013)

요 약

본 연구는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안양 만안뉴타운 도시설계안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평가와 결과물 분석을 통해 향후 주민 제안형 도시설계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뉴타운 시민대학은 기존 강의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분석하고, 설계안을 작성·제안하는 스튜디오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안양 만안팀의 계획안 ‘자연, 문화, 역사, 사람이 공존하는 Eco-Cycle 만안’은 2010년 시민대학의 대상을 수상한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안이다. 만안팀은 지역분석과 대안설정을 통해 문화, 여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으로 대상지역을 계획하였으며, 주민설계안이 실제 뉴타운의 재정비촉진지구 계획에 반영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디자인한 뉴타운 시민대학의 도시설계 작성과정과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주제어 : 도시설계, 주민참여, 시민대학, 뉴타운

ABSTRACT

This is a study regarding the efforts of the Gyong-gi Newtown Citizen Academy in Anyang Man-an Newtown and their role in shaping the urban design of their living environment. Our goal is to gauge how citizen participation may factor into the design process, from the early stages to the end result. The Newtown Academy diverged from the existing methods of a lecture centered approach to one that encouraged direct participation from the local citizens. We analyze the process and manner in which they drew up the plans. Our research focused on the winning proposal from the 2010 Citizen Academy Design competition, entitled ‘Coexistence with Nature, Culture, History, Human - Eco-Cycle Man-an’. The Man-an team conducted regional analyses to come up with their own alternatives that would allow culture, leisure and nature to coexist in the space of their targeted area. The Newtown redevelopment promotion district reflected the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Man-an team's design. This study examines an urban design process in which citizens become directly involved, which presents the possibilities and directions of an urban design that is public and resident-oriented, in nature.

Key words: Urban Design, Citizen(Resident) Participation, Citizen Academy, Newtown

1.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경기도에는 당초 12개 지자체 23개 사업지구의 뉴타운사업을 지정하여 추진하였으나 2013년 1월 현재, 10개 지구의 사업이 해제되고 13개 지구만이 사업을 이어가고 있다. 뉴타운사업은 사업성뿐만 아니라 재산권에 대한 이해관계와 사업

에 대한 인식 부족 등으로 주민과 지역사회의 갈등이 야기되고 주민민원이 발생하기도 한다. 주민의 이해증진과 갈등의 사전예방 측면에서 실천적 대안제시 유도를 위한 이론교육과 체험학습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경기도에서는 ‘주민에게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과 ‘주민이 참여하는 뉴타운 시민대학’을 진행하였다(2010.1~2010.4). 본 연구에서는 필자가 참여한 ‘참여하는 뉴타운 시민대학’의 진행성과를 살펴보고

1)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수석연구원(주저자: ump2000@empal.com)

2) 협성대학교 교수, 수원시 부시장(교신저자: jjlee@korea.kr)

3)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로

4) 수원시정연구원 연구위원

표 1. 연구 내용적 범위

범 위	내 용
문헌고찰	- 2010년 뉴타운 시민대학 운영경과 및 성과 - 시민대학 유사 교육프로그램 분석
도시설계 과정 및 분석	- 현황분석(SWOT) - 계획목표 설정 및 기본구상 - 최종계획 (부문별 세부계획 및 추진전략)

경진대회에서 대상을 수상한 안양만안팀의 주민제안 계획(안) 수립과정과 결과물을 분석하여 향후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경기도 뉴타운 시민대학은 2010년 한 차례만 진행되었으나, 그 운영과정과 평가를 통해 최근 새롭게 조명받고 있는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 나름 의미를 갖는다.

1.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4단계로 구성된다. 첫째, 문헌고찰을 통해 뉴타운 시민대학과 유사한 교육프로그램을 비교분석하여 시민대학의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2010년 경기도 뉴타운 시민대학의 운영내용과 성과를 분석하여 시민대학의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셋째, 주요 연구대상인 안양만안팀의 설계과정과 계획방법, 쟁점사항 등을 분석하여 프로세스상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의 운영내용과 설계과정을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3 연구범위

본 연구의 공간적 검토 범위는 안양만안지구 및 안양대교 인근의 계획대상지이다. 광역적으로는 안양만안 재정비촉진지구를 살펴보고, 세부적으로는 주민들이 계획대상지역으로 선정한 안양대교 인근 지역이다.

문헌고찰에서는 2010년 뉴타운 시민대학의 운영성과 및 유사 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뉴타운시민대학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도시설계 과정 및 분석에서는 안양만안팀의 계획과정과 결과물을 대상으로 하였다(표 1).

2.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 운영 분석

2.1 뉴타운 시민대학 운영 개요

경기도는 본격적인 뉴타운 사업시행 단계에서의 주민제안형 교육을 통한 주민역량 강화, 주민의견 수렴 및 갈등관리를 목표로 하여 ‘주민에게 찾아가는 시민대학’과 ‘주민이 참여하는 시민대학’을 운영하였다¹⁾. 주민에게 찾아가는 뉴타운

표 2. 뉴타운 시민대학 개요

	주민에게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	주민이 참여하는 뉴타운 시민대학
교육 목적	정보제공 및 주민역량 강화	지역리더 육성 및 주민제안 계획수립
교육 형태	이론교육(강의) + 토론	이론교육(강의) + 스튜디오(실습)
교육 방식	이론교육⇒주민의견수렴	강좌⇒토론 및 실습 ⇒주민제안(발표)⇒자문
교육 일정	권역별 뉴타운 시민대학 (2010.1.18~2010.2.4)	권역별 뉴타운 시민대학 (2010.2.20~2010.4.10) 경진대회(2010.4.17)
교육 시간	사업지구별 2일씩 진행 (하루 4시간, 총 8시간)	매주 토요일, 총 6주 (매주 9:30~17:30, 8시간씩)
교육 내용	해당지역 뉴타운 소개 진행절차 및 사업방식 관리처분 및 주민부담 등	도시재생 정책방향 주민제안 뉴타운 사업 도시재생 방법론 등

시민대학은 뉴타운에 대한 정보제공을 위해 강의식으로 이론교육을 진행하며, 주민이 참여하는 뉴타운 시민대학은 주민제안형 뉴타운 사업시행을 위한 방법론 등 주민제안형 뉴타운 도시설계(안) 수립과정을 지도하였다(표 2).

2.2 유사 교육프로그램 비교

주민들의 참여를 통해 도시를 자발적으로 발전시켜나가는 뉴거버넌스 활동은 미국 뉴욕시의 커뮤니티보드나 영국의 그린지역재생 운동과 같은 실천적인 방법으로 시행되고 있다. 또한 최근 국내에서도 여러 가지 주민참여의 역할이 강조된 질적개념의 지속가능한 발전성을 높이는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방향으로 개념이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뉴타운 시민대학과 유사한 해외의 교육프로그램에는 영국 도시재생협회의 도시재생 훈련 프로그램과 잉글리쉬 파트너십 도시개발대학, 미국 지역사회개발 아카데미, 일본 도시재생기구의 도시재생대학교 등이 있으며²⁾, 국내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경실련 도시개혁센터의 도시대학, 광주 YMCA의 좋은동네 시민대학 등이 있다. 또한 시민대학과 유사한 스튜디오형 국내 교육프로그램으로는 경기 도시대학, 도시대학(국토해양부), 성북구 도시아카데미 등을 들 수 있다. 뉴타운시민대학이 주로 도시재생지역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일본 도시재생기구의 도시재생대학교, 성북구 도시아카데미와 유사하다.

스튜디오형 도시대학³⁾은 주민주도의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주민역량 강화 교육프로그램으로서 도시설계 스튜디오

2) 이재준 등(2009), “시민참여 스튜디오형 도시대학 운영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국토계획」, 44(3): 247~259.

3) 스튜디오 방식이란, 일정한 사례 대상지에 대해서 팀을 구성하여 현황조사에서 상세계획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팀별작업(토론 및 실습)을 통해 계획(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인식하고 대안을 마련해나가는 계획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다(이재준 등, 2009).

1) 경기도시공사(2010), 「경기뉴타운 시민대학 운영 연구」.

표 3. 스튜디오형 도시대학 운영 비교

유형		주최,주관	교육목적	교육대상
국내	경기 도시대학	경기도, 협성대 푸른경기21실천협의 회	시민참여를 위한 시민역량 강화	주민, 학생
	도시대학	국토부, LH,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살고싶은 도시정책 확대, 시민 역량강화	주민, 학생
	도시 아카데미	서울성북구, 경원대, 고려대	시민 역량강화	주민, 학생
국외	미국 지역사회개발 아카데미	미주리 주정부	지역커뮤니티 개발, 지역리더 육성	주민, 실무자
	일본 도시재생기구 도시재생대학교	도시재생기구	도시재생 합의창출 프로그램	주민, 대학생, 고등학생

그림 1. 2010년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 강의만족도

오 방식을 활용한 실습형 교육프로그램이다. 스튜디오형 도시대학 수업진행은 보통 이론교육(강의) ⇒ 조별 토의 및 실습 ⇒ 주민 발표 ⇒ 의견 및 자문 순으로 진행되며, 5주~8주 정도 진행된다.

2.3 2010년 뉴타운 시민대학 운영결과

2.3.1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

2010년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은 광명시 광명뉴타운을 시작으로 평택시 신장지구까지 총 21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16회 교육이 진행되었다⁴⁾. 본 교육을 통해 수강생 6,350명을 배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강의 만족도는 평균 3.87로(5점 만점) 높은 편이다(그림 1). 수강생들은 수업분위기(4.01) 및 강사의 강의준비(4.01)에 대해 만족도가 높은 반면 강의시간(3.63) 및 강의수준(3.79)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강의 내용 중에는 관리처분 및 법무상식에 대한 강의 선호도가 높아, 지역주민들의 사적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의 경우, 스튜디오형 도시설계 과정에서 부족하기 쉬운 법률적 관계나 법, 제도적 이해를 도모했다는 차원에서 나름의 의미를 가진다.

표 4. 2010년 참여하는 뉴타운 시민대학 주제

주제		해당 팀
공간 계획 (18개팀)	하천 정비 (4개팀)	남양주퇴계원, 의정부금곡의, 안양만안, 군포금정
	공원 조성 (2개팀)	남양주덕소, 남양주지금도농
	역세권 개발 (2개팀)	김포, 고양원당
	가로 활성화 (5개팀)	고양일산, 구리인창수택, 시흥은행, 시흥신천대야, 평택안정
	교육 특화 (2개팀)	고양능곡, 의정부가능
	상권 활성화 (3개팀)	김포양곡, 오산, 평택신장
사업 계획 (6개팀)	일자리 창출 (6개팀)	광명(도시택배), 광명(자전거), 부천소사(과일농축액), 부천소사(도시투어) 부천고강(에코고리울), 부천고강(모형제작)

2.3.2 참여하는 뉴타운 시민대학

시민들이 직접 디자인을 제안하는 참여하는 뉴타운 시민대학은 제4권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진행되었다. 2010년 총 22개 지구 23개팀이 참여하여 교육이 진행되었으며, 지도교수, 공무원 등 관계자, 운영조교, 지역주민(232명) 등으로 팀이 구성되었다(팀당 평균 11명).

2010년 참여하는 뉴타운 시민대학의 주제는 크게 공간계획(18개팀)과 사업계획을 통한 일자리 창출(6개팀)로 구분할 수 있다. 공간계획은 하천 정비, 공원 조성, 역세권 개발, 가로활성화 등이며, 사업계획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팀은 도시투어, 모형제작, 도시택배 등의 사업구상을 진행하였다.

경기도 주관으로 5개 권역의 23개 팀 중 우수계획으로 선정된 11개 팀이 본선 경진대회를 치렀으며⁵⁾, 심사결과 대상으로 안양만안팀, 최우수상 김포양곡팀, 우수상 시흥대야신천팀과 부천고강팀, 오산팀, 남양주퇴계원팀 등이 선정되었다.

3. 주민제안형 도시설계 사례분석 - 안양 만안팀

3.1 팀 구성

본 절에서는 경진대회 대상을 수상한 안양 만안팀의 도시설계 과정과 결과물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쟁점사항과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안양 만안팀은 ‘2010년 주민이 참여하는 뉴타운 시민대학’의 5개 권역중 제4권역에 속해있다. 제4권역에는 안양 만안팀을 비롯하여 4개 팀이 있으며, 협성대학교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안양 만안팀은 지도교수 1인, 운영조교 2인, 지자체 공무원 1인, 설계업체 2인, 지역주민 8인으로 구성되

4) 경기도시공사(2010), 「경기뉴타운 시민대학 운영 연구」.

5) 2010년 4월 24일, 경기도 인재개발원 다산홀

그림 2. 주민제안형 도시설계 과정

그림 3. 대상지 선정 및 현장조사

었다. 참여하는 뉴타운 시민대학에서는 기존 시민참여 스튜디오 프로그램과 차별적으로 지자체 공무원과 해당 뉴타운 계획을 수립중인 설계업체(엔지니어링)가 참여하였으며, 이를 통해 시민 계획안의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 뉴타운 계획에 반영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만안팀의 경우 참여한 지역주민 대부분이 직·간접적으로 부동산중개업에 종사하고 있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다른 팀에 비해 높은 편이었다.

3.2 대상지 선정

시민대학 1주차는 시민이 참여하는 스튜디오형 시민대학 운영에 대한 사전이해를 돕기 위한 강좌와 오리엔테이션으로 진행되었다. 강좌로는 경기도 도시재생 정책방향, 뉴타운 시민대학 운영 및 우수사례, 뉴타운 조사 및 분석기법, 도시재생 및 마을만들기 사례, 뉴타운 관련 제도 설명 등이 진행되었다. 오후에 진행된 팀별 토의는 지역주민의 토론을 통해 계획대상지를 설정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토론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은 대체적으로 해당 지역의 변화 모습보다는 사적 재산권과 관련하여 관심이 매우 높았다. 그러나 만안지구 뉴타운사업 계획이 상당부분 진행중에 있고, 토지이용계획의 전면적인 수정이 불가능한 상황이므로 팀원들의 합의하에 공공지역에 해당하는 안양대교 인근지역을 계획 대상으로 선택하였다. 뉴타운 사업상 대상지역의 철거 및 재개발 등 전면적인 공간개편이 이루어지는 점을 감안하면 상대적으로 뉴타운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공간적 변화가 크지 않을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입지적 특성은 재생지역의 계획대상지 선정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3.3 지역현황 분석

3.3.1 만안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

안양 만안뉴타운 재정비촉진지구(이하 만안지구)는 안양

그림 4. 만안지구 현황분석 (지목, 용도, 경과년수)

그림 5. 대상지역 위치 및 현황분석

동, 석수동, 박달동 일원의 안양 구시가지 1,834,240㎡이며, 26,800세대 71,600명이 거주하고 있다. 만안지구는 수도권 전철 1호선 안양역과 관악역 사이에 위치하며 노후화된 다세대·다가구 주택이 밀집되어 있고, 철도·도로 등으로 인해 생활권이 단절되어 있고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이다. 사업지구내 안양천·삼막천·삼성천 등이 입지해 있고, 충훈도시자연공원과 비산도시자연공원은 안양천과 연계하여 공원녹지축으로 활용가능하다.

3.3.2 대상지 현황분석

시민대학 2주차 수업에서는 팀원들의 현장조사가 진행되었다⁶⁾. 계획대상지는 만안지구 중심부에 해당하는 안양대교 인근지역이다. 안양천 양안은 안양시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2001), 안양아트시티 21 기본계획(2003)에 의해 하천경관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해당지역은 만안뉴타운의 중심지역으로서, 향후 계획대상지 동측에 인접하여 수도권 전철 1호선의 신설역이 추가될 예정이다.

현장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된 SWOT분석 내용은 다음 표 5와 같다. 주민들은 대상지 SWOT분석을 통해 안양천의 입지적 장점과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여 만안뉴타운의 핵심 오픈스페이스로 만들자는 계획방향을 설정하였다.

6) 현장조사 방법으로는 문헌조사, 사진조사, 인터뷰 및 설문조사, 현장 워크숍 등을 진행하였다.

3.4 목표설정 및 기본구상

3.4.1 계획목표 및 방향설정

시민대학 3주차에서는 아이디어경쟁·집담회를 통해 계획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였다. 팀원들의 집담회(brainstorming)를 통해 제안된 아이디어는 ‘예술, 문화, 교육, 자연이 흐르는 만안’, ‘생태네트워크’, ‘Bicycle Station’, ‘Eco-Cycle’, ‘가고 싶은 개여울’, ‘Natural Park - 뚜벅이 공원’ 등이다. 이들 제안된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최종적으로 선정된 계획목표는 “예술·문화·교육·자연이 공존하는 Eco-Cycle 만안”이다. 예술·문화·교육·자연이라는 테마는 안양시가 추구하는 도시계획 목표와 대상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안양천변으로 문화예술시설을 설치하고 생태공원을 조성하며, 초등학교를 생태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생태요소들이 순환, 소통하며 공존하고 시민들이 참여하고 체험한다는 의미에서 “Eco-Cycle”을 지향한다. cycle은 순환(circulation)을 의미하며 한편으로는 자전거(bicycle) 연계 거점으로서 해당지역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3.4.2 기본구상

4주차 수업에서는 공간구상을 위해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공모하였다. 구상안을 작성하는 기본적인 방법을 시범적으로 제시한 후 주민들이 직접 아이디어를 스케치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스케치는 전문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인 개념을 도식화하는 것으로, 형상화하기 어려운 내용은 메모를 통해 작성토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비전문

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이해를 바탕으로 상당 수준의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하였다(그림 6).

주민들의 아이디어를 종합하여 작성한 공간구상 아이디어는 그림 7과 같다. 공간 기본구상에서는 blue network을 형성하는 안양천과 삼성천을 정비하고, 하천 양안으로 수변공원과 복합문화센터를 제안하였다. 대상지 동남부에 위치한 기존 초등학교를 생태교육공간으로 조성하고 하천과 연계되는 새새라기 공원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공간들이 도로 및 하천 등으로 분절되는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대상지 전체를 하나의 동선으로 묶을 수 있는 대규모 원형육교(circle, cycle)를 계획하여 원활한 연계와 소통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3.5 종합구상 및 특화계획

2010년 경기도 뉴타운 참여하는 시민대학 안양 만안팀의 최종 결과물로 “자연, 문화, 역사, 사람이 공존하는 Eco-Cycle 만안”이 제안되었으며, 세부 시설구상은 그림 8과 같다.

3.5.1 문화예술공원

안양천 북쪽 공간에는 수변 공연장을 포함한 문화예술공원을 계획하였다. 문화예술공원은 공연, 자전거, 생태가 조화되는 공원으로서 정(靜), 중(中), 동(動)의 공간을 구축하였다.

그림 6. 기본구상 스케치 과정 및 주민 아이디어

그림 7. 기본구상

표 5. 계획대상지 SWOT분석

강점(Strength)	약점(Weakness)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수산업도로, 중앙로, 만안로 등 광역적 접근 양호 넓은 하천부지는 공간 활용 가능 철새가 찾아오는 생태공간으로서 안양천 수암천, 삼막천, 삼성천 합수지점 안양예술공원과 도보 연결 가능 관악산, 삼성산, 수리산 근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양천변 주민휴식공간 부족 지구내 도로, 공원, 주차장 등 도시 기반시설 부족 철도, 도로 등으로 인한 소음 발생 하천변 도로로 인해 보행 접근성 단절 야간 조명과 간이 운동시설 부족 보행 및 자전거 횡단시설 부재
기회(Opportunity)	위협(Threa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안뉴타운의 핵심 역할중심부 대규모 오픈 스페이스 신설 지하철역으로 인한 접근성 향상 기대 녹지축 연계 개발시 공원화 가능 안양천 홍수 예방 효과 수질 개선 및 수량 확보 용이 외부 경제활동인구 유입으로 인한 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광명 GTX역과 연계 가능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기철 홍수로 인한 재해 위험 대규모 시설 설치시 관리비용 증가 우려 국가하천으로 관리청과 협의 어려움

그림 8. 최종 계획안

그림 9. 문화예술공원과 복합문화센터 구상

대상지 북동쪽에서 흐르는 삼성천의 지류를 우회시켜 문화예술평원의 수변공간을 조성하며, 삼성천변에는 갈대숲 등 습지공원을 조성하고 안양천변에는 꽃메산으로 연계되는 생태자연공원을 배치하였다.

3.5.2 복합문화센터

기존 구도심인 만안지구에 문화, 예술시설이 부족한 점을 감안하여 대상지 남서측에 복합문화센터를 계획하였다. 복합문화센터의 세부시설로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체육시설, 문화시설, 전시시설, 자전거면허시험장 등이 계획되었으며, 운영 프로그램으로는 체험학습(놀면서 배우기), MTB 강좌 등을 제시하였다. 주민들은 쉽고, 재미있고, 편하게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를 요구하였으며, 외부와 내부의 경계가 없이 접근성이 자유로운 트인 공간을 희망하였다.

3.5.3 자전거 네트워크 및 거점화

안양천변의 자전거도로는 기반시설이 정비수준이 높은 편으로, 안양시 주요 정책사업으로 진행된 결과이다. 안양천이 서울의 한강으로 연계되어 있고 자전거도로망이 갖춰져 있는 점을 착안하여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고 광역도로망의 거점 역할을 계획하였다. 만안지구(안양)를 거점으로 안양-도림-여

그림 10. 자전거 네트워크 및 거점화 구상

의나루-잠원-양재-과천-안양으로 이어지는 광역 자전거도로망이 가능하며, 저점역할을 할 수 있는 자전거박물관, 자전거면허시험장, 자전거수리점 및 대여점 등을 대상지내에 설치하고자 하였다.

3.6 추진전략(안)

추진전략으로는 뉴타운 사업진행에 따라 단기, 중기, 장기
로 구분하여 대상공간과 주체별 역할을 제시하였다.

뉴타운사업 공사 전에는 하천(안양천, 삼성천) 정비를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되, 시민 아이디어 공모와 의견수렴을 통해 구체적인 기본계획이 마련되어야 하며, 정부부처의 공모 사업에 참여하여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하천 지역은 뉴타운 사업의 진행여부와 관계없이 유지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지역주민의 아이디어를 모아 만안지구의 핵심지역을 조성해야 한다.

뉴타운사업이 진행되는 중기 전략으로 초등학교와 생태습지공원을 대상으로 시설정비와 문화행사, 교육, 축제 프로그램을 개발 등 장소만들기(place making)가 진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관리조직 및 협의체를 조직하고 ‘(가칭) 만안문화예술특구’를 추진하도록 제안한다. 뉴타운사업이 완료되는 시점(2020년)에는 문화예술공원과 복합문화센터가 준공되어야 하며, 신설역(가칭, 만안예술공원역)이 설치·운영되어야 한다.

뉴타운 사업이 완료되는 장기 시점에는 축제, 문화행사 등 안양천 프로그램이 원활히 운영되고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려진 장소마케팅(place marketing)이 진행되어 해당지역이 안양시의 명소가 되도록 해야 한다.

4. 평가 및 요구사항

주민 의식조사를 통해 2010년 참여하는 뉴타운 시민대학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발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설문조사는 경진대회에 참석한 11개팀의 수료자 80여명을 대상으로 하였다(2010.4.24). 수거된 설문지중 유효 설문은 70

표 6. 사업 추진전략

구분	사업시기	대상공간	주체별 역할 및 전략
단기	뉴타운 사업 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천(안양천, 삼성천) 안양근린공원-안양천-꽃매산 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안양천(만안지구) 시민아이디어 공모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 수립 정부부처 사업 공모참여
중기	뉴타운 사업 중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학교 생태습지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만들기(place making) 안양천 프로그램 개발 (문화행사, 교육, 축제) 관리조직, 협의체 구성 만안문화예술특구 추진
장기	뉴타운사업 완료(2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공원, 복합문화센터 예술공원역신설,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장소마케팅 (place marketing) 안양천 프로그램 운영, 관리 지역 명소화

여부 내외로서 전체 수료자의 30% 수준으로, 일반화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지만 전반적인 수료자의 의견으로는 참고할 만하다.

4.1 주민제안(안) 반영 및 주민역량 강화

시민대학에서 제안한 주민제안(안)이 뉴타운 추진에 얼마나 반영될 것으로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81%(높음 60%, 매우높음 21%)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경기도 자료에 의하면 실제 뉴타운 시민대학에 참가한 22개 지구중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된 곳이 15개 지구에 달해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한 것으로 판단된다. 뉴타운 시민대학을 통해 주민제안 능력(계획, 설계 수립 등)이 얼마나 강화되었나에 대한 질문에 74%(높음 45%, 매우높음 2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4.2 교육성과 및 활용

향후 뉴타운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시민대학의 교육성과 및 향후 활용에 대해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내용 이해’(56%), ‘재개발·재건축 계획 등 참여’(21%), ‘주민조합 결성 및 운영’(13%) 등에 대한 의견비율이 높았다. 이는 시민대학을 통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이해와 주민역량이 강화되었음을 말해준다.

4.3 팔로우업(follow-up)

시민대학 수료자들이 향후 추가 교육프로그램으로 희망하는 분야로는 ‘주민조합 구성 및 운영과정’(53%), ‘관리처분 및 세무과정’(25%), ‘재개발·재건축 계획과정’(13%), ‘일자리 창출과정’(7%) 등이다.

또한 시민대학 수료자들이 향후 뉴타운 사업에 희망하는 주민참여 방식은 주민지원센터(28%), 실무전문가(26%), 조합장 및 임원(18%), 추진위원회(17%) 등이다. 이는 시민대학에 참가한 주민들이 뉴타운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를 희

망하며, 향후 시민대학 수료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교육으로 뉴타운사업 실무 및 법률 교육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5. 결 론

5.1 소결

본 연구에서는 2010년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 프로그램으로 진행된 안양 만안뉴타운 도시설계안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운영과정과 결과물을 분석하고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발전 방향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결과 및 향후 뉴타운 시민대학 및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5.1.1 자연, 문화, 역사, 사람이 공존하는 Eco-Cycle 만안

참여하는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은 기존 강의 위주의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분석하고, 설계안을 작성·제안하는 스튜디오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안양 만안팀은 해당 과정을 통해 ‘자연, 문화, 역사, 사람이 공존하는 Eco-Cycle 만안’을 제시하였다. 본 도시설계안은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디자인한 결과물로서 그 의미가 크며, 설계 과정상의 주민 참여, 관계자의 협업은 공공디자인으로서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가능성과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1.2 스튜디오형 교육프로그램의 성과 및 효과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계획하는 스튜디오형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뉴타운 사업에 대한 이해가 높아졌으며 계획·설계에 대한 주민역량이 제고됨을 확인할 수 있다. 팀 구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이해관계자(주민, 공무원, 계획업체)의 참여로 실효성을 높이고, 실제 법정계획에 반영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도시공간의 사용주체로서 주민이 직접 도시설계에 참여하여 공간을 계획하고, 실현되는 과정으로서 주민-관-업체가 모두 윈-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법·제도적 이해나 사업성 평가, 분쟁 등에 대한 전문가와 프로그램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의 경우와 같이 집단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해당 사업의 전반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안이다.

5.1.3 추가 교육프로그램 및 모니터링 필요

참여하는 뉴타운 시민대학 수료자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교육 및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수료자들이 희망하는 추가 교육내용은 주로 사업추진 관련 법, 제도 등 실무적인 내용으로 해당 지자체에서는 이에 대한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수료자들의 사후 관리 및 모니터링을 통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5.2 정책제언

5.2.1 제도적 확대방안

뉴타운과 같은 도시재생 지역의 경우 갈등관리, 주민참여를 위한 방안으로서 재생사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시민대학의 지속적인 운영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지자체 운영조례 및 지침 마련이 필요하며, 여기에는 운영주체, 시기,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5.2.2 시민대학 운영주체 검토

지속적인 교육진행을 위해서는 운영주체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데 단기적으로는 지자체 및 지방공기업 내부에 시민대학 운영조직을 마련하거나 지자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등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시민대학의 발전적 확대를 위해서는 지역 대학, 시민단체에 위탁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검토될 수 있다.

5.2.3 주민제안 계획 수립의 제도화

주민제안형 도시설계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해당 과정에서 제안된 계획안이 실제 법정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안양 만안동을 비롯해 15개 지구에서 2010년 뉴타운 시민대학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주민제안 계획(안)이 재정비촉진계획에 반영된 바 있다. 주민제안 계획(안)의 제도적 반영은 주민과의 갈등요소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책임의식이 강화되어 사업의 원활한 진행에 기여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 스튜디오형 교육프로그램은 해당 지역의 도시설계 과정에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역량강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이러한 교육프로그램을 도시설계 과정에 포함시키는 법제화 노력이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논문은 경기도 뉴타운 시민대학 도시설계 진행과정과 성과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참고문헌

1. 경기도시공사(2010), 「경기뉴타운 시민대학 운영 연구」.
2. 국토해양부(2009), 「살고싶은 도시를 꿈꾸는 도시대학 매뉴얼」.
3. 김세용(2002), “지구단위계획에서 주민참여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8(9): 195~202.
4. 김종동(2009),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를 위한 주민교육의 특성에 관한 연구 - 도시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사토 시게루, 민혁석, 최윤서(2008), 「마을만들기 디자인게임」, 서울시정개발연구원.
6. 신예철, 구자훈(2010), “도시디자인으로서 공공디자인 정책의 평가체계 연구 / 서울시 공공디자인 정책평가를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12~24.
7. 안양시(2001), 「도시경관형성 기본계획」.
8. 안양시(2003), 「안양아트시티 21 기본계획」.
9. 여혜진, 김광중(2008), “대학-지역사회 협력적 계획의 한국적 여건 / 서울소재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국토계획」, 43(5): 91~106.
10. 이륜정, 이재선(2008), “도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수립과정에서의 주민참여 방안 연구”,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331~340.
11. 이재준, 안상욱, 김도영, 최석환(2009), “시민참여 스튜디오형 도시대학 운영을 통한 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 「국토계획」, 44(3): 247~259.
12. 조영태, 김윤희, 최상희(2010), 「녹색성장시대의 그린타운 도입 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13. 한국도시설계학회(2010), 「주민이 참여하는 경기 뉴타운 시민대학」.
14. 송수연(2010), “찾아가는 뉴타운 시민대학 교육 프로그램”, 「Urban Review」, 21: 34.
15. 김진경, 황기원(2011), “도시대학 교육프로그램의 주민역량강화 효과성 분석 / 푸른 경기 21 도시대학 교육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국도시설계학회지」, 12(5): 5~18.
16. Roberts, P. and H. Sykes (2000), *Urban Regeneration: A Handbook*, Sage.

7) 경기도시공사(2010) 연구보고서에서는 향후 조치로서 뉴타운 시민대학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시민자문단’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하였다.